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무엘하 7:1-5.8-12.14.16	제2독서	로마 15:25-27	복음	루카 1:26-38
--------	------	-----------------------	------	-------------	----	------------

◎말씀 < 임하소서, 구세주여! >

구세주를 기다려온 인류의 오랜 기다림을 상징하는 대림 촛불을 모두 밝혔습니다. 구세주 오심으로 이 세상이 죄의 어둠에서 구원되는 성탄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기다림의 여정에서 우리는 성서 안에서 많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메시아 탄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 인물을 만납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처럼 보이기도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불확실한 미래에 나의 삶을 내맡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군말이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고이며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밤길에도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을 내어 맡기며 발길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미래를

예상하지만 전염병 대유행으로 우리 앞날의 불확실성은 높아만 가고 불안과 걱정, 좌절감이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시켜 줄 안전하고도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성모님과 함께 굳은 믿음 안에서 걸어갑시다, 가다 보면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 걱정들은 희망과 기쁨,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의 남은 시간이 주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보다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힘을 쏟아봅시다. 내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침묵 속으로 들어가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소리를 들어봅시다. 창가에 부치는 바람소리, 바깥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 맑은 소리, 나를 찾는 형제들의 소리, 속삭이듯 다가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어 봅시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주님께서 어서 우리 마음이 텅 빈 구유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합시다. 곧 다가올 성탄절에 기쁨의 탄성이 모든 가난한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길 고대합니다.

임하소서. 구세주여!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22일(화)	대림 제4주간 화요일		교 무 금	\$ 3,060.00
			주일헌금	\$ 532.00
12월23일(수)	대림 제4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 180.00
			성소후원	\$ 150.00
12월24일(목)	대림 제4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 460.00
			성물방	\$ 160.00
12월25일(금)	주님성탄대축일		기타수입	\$ 150.00
			ACA Rebates	\$ 0.00
12월26일(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합 계	\$ 4,692.00
12월27일(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60명

교무금 봉헌자 송민자(11-12월)이환.이호영(9-12월)이종만(6-12월)김기환(4-12월)김희숙(1-12월)전우성(11월)윤재경.박원상.최재진.우순이.김영숙(12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다가올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라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는 죄의 용서와 더불어 ‘하느님의 자녀 됨’ 이라는 거룩한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죄의 용서만을 위한 세례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단순한 죄의 용서만이 아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②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생 이전까지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반복적으로 죄와 잘못을 범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가 필요하지 않으셨지만, 신앙의 첫 시작인 세례를 기꺼이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를 하느님 께로 이끄는 모범이 되어주셨으며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나약한 탓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자주

하느님을 잊어버리며 유혹에 빠지곤 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맞추며 아이와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아이가 사용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써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눈높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차례이며 내뒤틀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등대가 되어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었고 구원되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뎃다 신용경.그레고리오/이상일.마리아/곽화근.요한 신상철.사무엘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안영진.로사 영혼	국마리아	연	양노엘신부님, 김상림.아델라 박판기.세실리아, 이봉기.요아킴 영혼	이순자요안나
연	박판기.세실리아 영혼	국마리아			
연	안영진.로사 영혼	손창식돈보스코 /데레사	생	본당레지오단원들 영육건강	윤재경.알베르도
			생	곽화근.요한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
연	손용문.베드로 영혼	손창식돈보스코 /데레사	생	장영란.젼마 영육건강	임정남.실비아
연	최진우.프란치스코 영혼	송돈희.요셉	생	이호순.수산나 건강회복	류가브리엘라

간
장
중
지

◎오소서◎

환희의 평화여, 쓰러진 자의 희망이여.
오소서. 당신의 눈물로 나를 정화시키소서

세상의 아픔 다 껴안은 사랑의 현신이여
당신의 빛과 선함으로 내 영혼 씻어주소서.
마종기.노렌조 시인/의사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

게스관광

(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Print N Signs

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

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보여주신 순종과 성김을
우리도 배워, 언제나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릅니다.

1.미사안내

주일미사:오전10시(교중미사) 야외미사
미사후 자발적으로 정리정돈에 참여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일미사:온라인미사 (문의:각구역장)
오후6시(동영상),오후7시30분(Zoom)
금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미사 없습니다.
집전:김원현.베드로 본당주임 신부님

2.연말연시 전례안내

성탄대축일 밤미사:24일(목)밤8시(Zoom)
성탄대축일 낮미사:25일(금)오전10시
송년미사 :31일(목) 없음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1월1일(금)오전10시

3.성탄기념 사랑의 쌀 나눔 (사회복지부:50포증정)

일시:20일,25일,27일 교중미사직후
대상:요셉회.안나회 어르신
방역상 건강상 못오시는 분들은 사목회에서
전달해드립니다.

4.교무금봉헌(2020년도)

어려우시더라도 금년도 교무금은 완납바랍니다

5.St.Mary's 천주교묘소 한국섹션 완공안내

묘소완공:21년1월(예정)/안장:21년2월부터가능
선종하신 가족을 모실 교우분은 연령회장님께
미리 신청바랍니다. (신부님과 일정조율 필요)
문의:고원석.바로로 연령회장(916-813-4440)

6.2021년도 달력 배부중 (사무실)

기준:각가정당 1부 / 배부:금~일(11시~16시)

7.교구2차헌금(지난주 우천으로 연기)

일시:20일(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

8.감사합니다.

감사헌금:김희숙(\$15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일요일 오전10시(교중미사)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무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무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전례봉사	대림제4주일(12월20일)	예수.마리아.요셉 성가정축일(12월27일)	주님공헌대축일(1월3일)	주님세례축일(1월10일)
복사	최진호.다니엘	최준우.루카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